

# 여수에서 건설업을 하는 A씨는 지난해 7월 양도소득세 8900만원 가운데 지방세분(10%) 납부를 계속 미뤘다. 70억원 상당 건물이 압류돼 있지만 공매 절차가 복잡해 추징이 안되고 있었고 자신 명의의 예금이나 자동차조차 없어 버티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지난 4월 여수 시로부터 통지서를 받고 결국 두 손을 들었다. 여수시가 5000만원 상당의 A씨의 가상화폐 투자 내역을 확인, 계좌를 압류한 것이다. 거래가 정지된 채 폭락하는 코인 가격을 보다 못한 A씨는 "7월 중 밀린 세금을 자진 납부하겠다. 제발 코인 거래정지를 풀어달라"고 여수시에 호소했다.

# 광주시 남구에 사는 B씨는 지난해 6월부터 자동차세 외 14건에 대한 지방세 139만원을 체납했다. 남구는 B씨의 재산을 추적하던 중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450만원 상당의 코인 투자금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남구가 지난달 1일 가상화폐 거래 계좌 압류를 예고하자, B씨는 1주일 만에 체납액을 전액 납부했다.

## 가상화폐·해외직구 압류에 “밀린 세금 낼게요”

### 압류 대상 다각화에 ‘절절’

보유재산이 있는데도 지방세 등 세금 납부를 미루는 악성 체납자들이 점점 더 궁지에 몰리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체납자 자산 은닉을 막기 위해 압류 대상이 가상화폐, 해외직구 물품 등 다양화하며 바짝 추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광주시 등 지자체들에 따르면 가상 자산은 지난해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면서 징수 대상이 됐다.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 자산 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 등이 준수하는 고객 본인 확인, 의심 거래 보고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개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난해 4월부터, 전남도는 5월부터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4곳의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을 확인해 압류, 처분까지 진행해 왔다.

일선 징세 담당자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다른 자산에 비해 비교적 압류에 제약이 적다.

예금·급여의 경우 국제징수법시행령, 지방세징수법 등에 따라 185만원 이하의 예금과 월 185만원 이하 급여는 압류가 금지돼 있다. 체납자이더라도 최저생계비는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동차, 부동산은 압류 이후 공매를 거치는 과정이 복잡해 제약이 많았다. 하지만 가상자산은 투자성 자산으로서 별도의 제약없이 즉시 추심이 가능해 징수에 큰 도움이 되고 있

다는 것이다.

더불어 최근에는 지방세 체납자라도 해외 수입물품을 압류·추심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국제 체납자에 한해서만 해외 수입물품을 압류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부터 수입물품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시는 지난 6월 29일, 전남도는 7월 6일 관세청에 체납자 수입물품·해외직구 물품 체납 처분을 위탁했다. 법 개정은 지난해 이뤄졌으나, 이들 지자체는 행정안전부, 관세청과 협의 거쳐 관련 시스템 구축을 마친 뒤 지난달 말부터 해외 수입물품 압류를 시작했다.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해 고액·상습 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이들이 대상이다. 이들이 고가의 물건을 사거나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하면 세관에서 즉시 압류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체납자가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 가방 등 고가 휴대물품, 국내에서 소지하고 출국했다가 입국할 때 재반입하는 보석류, 법인이 구매할 대규모 수입품, 해외 직구로 산 가전·의류제품 등이 압류 대상이다.

2021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도 등록된 광주 341명(총 체납액 253억원), 전남 294명(총 체납액 137억원)이 대상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오는 11월 발표될 2022년 고액·상습 체납자 광주 361명(125억원), 전남 286명(84억원)에 대한 수입물품 압류도 추가로 의뢰할 계획이다. /유연재 기자 yjyou@



물 반 사람 반 휴일인 10일 함평 엑스포공원을 찾은 피서객들이 파도풀에서 찜통더위를 식히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보훈병원 ‘60년만에’ 수술대

### 국가보훈처, 보훈의료 서비스·전달체계 혁신

진료 공백과 질 낮은 의료 서비스로 지적을 받던 광주보훈병원(광주일보 6월 24일자 6면)을 포함한 전국 6곳의 보훈병원이 60여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국가보훈처는 보훈의료에 대한 고강도 혁신을 단행하기 위해 조직 진단·경영관리 자문·의료 행정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보훈의료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면적인 혁신안 마련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보훈처는 “의료진의 대거 이탈로 일부 진료과목은 전문의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으며, 초음파 검사의 경우 대기 기간이 1년 여에 달하는 등 모든 불편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몫이 되고 있다”면서 “이런 위기 상황 극복에 앞장서야 할 보훈공단은 임원 간 파벌 갈등, 부조리한 관행, 고비용·저효율의 사업 구조 등에 발목이 잡혀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보훈처는 ▲보훈의료 서비스 혁신 ▲보훈의료 전달체계 효율화(공공기관 혁신) 등 두 가지 방향으로 고강도 쇠신 작업을 추진한다. 예약·진료·입퇴원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진료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수체계의 합리적 개편, 보훈공단-보훈병원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혁신위는 연내 보훈의료 혁신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혁신안 마련 과정에서 위법 사실 등이 밝혀질 경우 보훈공단 및 보훈병원에 대한 특별감사 등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지금이야말로 국가보훈이 과거의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도약을 할 시점”이라며 “정확한 진단을 통해 신속하게 환부를 도려내는 혁신안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 동구 여행 길라잡이 ‘여행자의 ZIP’ 개관

### 옛 도교육감 관사 리모델링...물품보관소·안내데스크 등

광주시 동구가 동명동에 여행자들의 편의공간인 ‘여행자의 집(ZIP)’을 열었다.

동구는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문화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 8일 ‘여행자의 집(ZIP)’ 개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여행자의 집은 전남도교육감 관사로 사용했던 건물을 매입해 동구를 찾는 여행자들이 실질적으로 광주의 관광 콘텐츠를 지속해서 소비할 수 있도록 킬러 콘텐츠를 담아 관광플랫폼으로 재탄생

시켰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관광안내센터(안내데스크, 물품보관소 등) ▲지퍼샵(동구 대표관광상품 편집숍) ▲웰컴라운지(실내라운지·실외테라스) ▲지퍼 펜트리(식료품 제공) ▲여행자 연구소(사무·회의공간) ▲무등의 공간(기념 포토존) 등으로 꾸며졌다. 화요일에서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고, 매주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한다. /정병호 기자 jusbh@

## “물 아껴주세요”

지속하는 가뭄으로 광주 주요 식수원의 저수량이 크게 떨어지면서, 수도물 수질 저하와 공급 차질 등이 우려되고 있다. 광주시는 이례적으로 시민에게 절수실천까지 당부하고 나섰다. 큰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당분간 식수부족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0일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부터 강수량이 평년에 크게 못 미치면서 광주 식수 공급원인 동북댐, 주암댐 저수량이 평년의

광주 주요 식수원 저수량 ‘뚝’ 수도물 수질 저하·공급차질 우려 동북댐·주암댐 저수율 20%대 당분간 비 내려도 회복 어려워

절반 이하로 내려갔다.

광주 식수 공급량의 60%를 책임지는 동북댐은 지난 6월까지만해도 62%대를 유지하던 평균 저수율이 이날 현재 23%에 불과하다. 나머지 40%를 담당하는 주암댐의 현재 평균 저수율도 24%대로 뚝 떨어진 상황이다.

이달 중순까지도 제대로 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저수율이 20% 미만으로 떨어지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상수도사업본부는 우려했다. 때 이른 폭염으로 시민들의 수도물 사용량이 증가한 점도 저수율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

광주 수도물 생산·사용량은 하루 50만㎥가량을 기록하다가 7월 들어 기온이 올라가면서 54만㎥ 수준으로 증가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가뭄이 지속되면 수질이 나빠지고 수도물의 안정적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설비와 정수 처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또 가뭄에 따른 비상대응 매뉴얼에 따라 물절약 시민 홍보, 급수 수계조정 계획 및 비상급수 대책 등도 시행할 계획이다.

염방열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동북댐, 주암댐의 저수율이 너무 낮아 비가 오더라도 평균치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물 아껴 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가뭄으로 인한 식수부족 현상 예방을 위한 절수실천을 당부하고 나섰다. /정병호 기자 jusbh@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3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8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침단지점, 동광주지점, 각학지점